



## 위기를 이겨내는 ‘항체’, 청운인의 ‘함께’

-일상이 된 체온측정, 그 현장을 살피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해 대학 내 출입자를 대상으로 근로학생 및 교직원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등갯길. 낯설게만 느껴졌던 체온측정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정문과 여덕관 입구, 버스 승·하차장, 일반 차량 이용자 등 대학 내 출입 시에 열 감지 카메라와 체온계를 통해 체온측정을 시행하고 있다. 37.5°C 이상의 발열자는 출입 통제 및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 체온 확인 완료 시에는 대상자의 팔 또는 옷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강렬한 햇빛 아래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다.

/장선민 기자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학습방법 경진대회 시상식

지난 6월 15일(월), 9동 2층 부속실에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학습방법 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가정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전국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 전국 전문대학생 학습방법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원격수업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활동, 특별한 공부비법’을 주제로, UCC와 에세이 두 부문으로 나눠 심사가 이뤄졌다.

이 대회에서 우리 대학 과학수사과 류은형 학우가 UCC 크리에이트 부문 장려상을, 간호학과 김연지 학우가 자기주도학습 에세이 부문 최우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됐다.

/오다영 기자



## 신문방송국 신입국원 & 히트메이커 7기

■ 신문방송국 수습기자 및 수습국원

신문사 수습기자	물리치료과	유 경 민
	작업치료과	이 예 림
	방사선과	김 규 리
	화장품과학과	정 아 빈
방송국 수습국원	의료융합과	한 유 진
	간호학과	이 정 원
	방송콘텐츠과	김 하 연
	방송콘텐츠과	홍 수 연

■ 히트메이커 7기

1학년	치위생과	김 성 현
	사회복지과	황 채 원
	통합예술체육과	송 혁
	통합예술체육과	이 경 민
2학년	화장품과학과	김 지 연
	안경광학과	김 선 주
3학년	방사선과	정 준 원
	방사선과	최 민 지
	환경보건과	강 보 성

## INDEX

- 01 위기를 이겨내는 ‘항체’, 청운인의 ‘함께’
- 02 (주)CMSLAB 산학협력 업무협약식
- 03 자랑스러운 동문, 안기전 의장님
- 04 새롭게 바뀐 교내 유일 카페, LINE 21
- 05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화살이 아닌 부메랑이다
- 06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 08 얼어붙은 2020, 우리는 스몰이다



## (주)CMSLAB 산학협력 업무협약식



지난 6월 25일(목), 우리 대학 9동 2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주)CMSLAB와의 산학협력 업무협약식이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이강오 총장과 (주)CMSLAB 이진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강오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대학 화장품과학과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유명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대학과 화장품과학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준 (주)CMSLAB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주)CMSLAB은 여러 국가에 메디컬 뷰티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국내 메디컬 뷰티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기업이다. 이번 산학협력 MOU를 통해 우리 대학과 (주)CMSLAB간의 상호 발전이 기대된다.

/유경민 수습기자

##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



지난 5월 18일(월), 9동 2층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착수 보고회는 현재 사용 중인 종합정보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이 시작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 착수 보고 후, ‘대전보건대학교 AR캠퍼스 길찾기 서비스’가 시연됐다. 이 서비스는 AR 기술을 사용해 우리 대학 내의 편의시설을 찾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후 사용이 가능하다.

여러 기술이 접목된 이번 개발을 통해 더 편리하고 첨단화된 학교생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리 수습기자

대전보건대학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정표

전공 교과목	2020년 6월 29일(월) ~ 7월 24일(금)	시험 방식 및 시간표는 소속학과에서 별도 공지
교양 교과목	전면 비대면 (2020년 6월 18일 확정)	과제를 대체의 경우 온라인 제출 원칙
추가시험 실시	2020년 7월 1일(수) ~ 7월 29일(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성적열람기간	2020년 7월 1일(수) ~ 7월 29일(수)	
성적정정기간	2020년 7월 28일(화) ~ 7월 30일(목)	

## (주)Mars & LINE 21 진동 커피 드립 머신 물품 기증식



지난 6월 24일(수), 교내 카페 LINE 21에서 ‘진동 커피 드립 머신 물품 기증식’이 진행됐다. 이날 (주)Mars(주식회사 마르스)에서 우리 대학 교내 카페인 LINE 21에 진동 커피 드립 머신을 기증했다. 이에 이강오 총장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기증식 후에는 진동 커피 드립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를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증식을 통해 LINE 21이 한층 더 높아진 수준의 질과 서비스로 학우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장선민 기자

##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면·비대면 시험 선택적 시행



지난 6월 5일(금),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안내했다. 기말고사는 교수자가 담당 교과목 성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선택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면·비대면 시험 시행에 대한 자세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상황에 따라 기말고사 원칙이 변경될 수 있다.

대면시험은 선행적 조치사항(마스크 착용, 책상 등 사무용품 소독, 손 소독제 사용, 정기적 환기, 책상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실시한다. 비대면 시험은 학생들의 학습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제출 방식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온라인 시험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시험도 가능하지만,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순 암기나 자료 참고만으로 풀 수 없는 창의적 문제 출제를 권장한다.

교양 교과목 시험 기간은 6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이며 전공 교과목 시험 기간은 6월 29(월)부터 7월 24일(금)까지이다. 전공 교과목 시험방식 및 시간표 등 기타사항은 소속학과에서 별도 홈페이지 공지 예정이며, 시험 중 학생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자 처리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교양교육원에서 개설된 전체 교과목에 대하여 전면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공지했다.

/이현선 기자



## 신문방송국 수습국원 각오

### □ 신문사

**수습기자 유경민** \_ 새롭게 신문방송국의 일원이 된 유경민입니다. 저의 fun하고, cool하고, sensible한 기사 많이 기대해 주세요!

**수습기자 김규리** \_ 신문사의 수습기자가 되어 너무 기쁘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좋은 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습기자 정아빈** \_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워 좋은 기사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습기자 이예림** \_ 2020학년도 신문사 수습기자로 발탁된 이예림입니다. 공신력 있는 글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 방송국

**수습국원 홍수연** \_ 청운인 여러분들에게 항상 유익한 정보만을 방송으로 전달해 드리게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국원이 되겠습니다. 화팅 >.<!

**수습국원 김하연** \_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와 힘나는 노래를 들려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습국원 이정원** \_ 여러분이 아침을 힘차게 열수 있게, 저녁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여러분의 아침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수습국원 한유진** \_ 한 학기라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만난 만큼 더 즐거운 아침, 저녁 모두 웃음이 절로 나는 방송을 들려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기대해주세요~^0^



## 히트메이커 7기 각오



**치위생과 김성현** \_ 히트메이커 7기 김성현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2020년을 히트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Hit Maker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황채원** \_ 누구나 오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사선과 최민지** \_ 졸업하기 전에 히트메이커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면서 우리 학교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통합예술체육과 송혁** \_ 일상에 지치고 많이 힘드시죠? 바쁜 와중에 불안한 기분 마저 드는 요즘 같은 일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 행복 바이러스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쁨을 노력하는 히트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통합예술체육과 이경민** \_ 대전보건대학교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히트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화장품과학과 김지연** \_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홍보대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작년보다 학교 홍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광학과 김선주** \_ 대전보건대학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밝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세요!

**방사선과 정준원** \_ 16년도에 입학하면서 3기와 4기를 임명받아 활동 후 다시 한 번 7기에 탑승으로 홍보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신입생 때의 패기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맡은 바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과 강보성** \_ 안녕하세요! 히트메이커 5,6기에 이어 7기까지 하게 된 환경보건과 3학년 22살 강보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1학기가 지나갔는데요!ㅠㅠ 남은 2학기에는 정상적인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활동하지 못해 아쉬운 만큼 2학기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6월·7월 교원 및 직원 인사 발령

학과장 임명	2020.08.01.	바이오의약과	윤경아
신규임용 직원 명단	2020.06.01.	학생·취업처	박춘숙
		입학처	한슬기
		HRD사업단	노주은
		교무처	차진혁
		생활관	민경아
		생활관	연제은

## 자랑스러운 동문 소식, 안기전 의장님



지난 7월 1일(수), 금산군의회는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치렀다.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선출된 후반기 의장으로는 우리 대학 치기공과를 졸업한 안기전 의원이 선출됐다. 안기전 신임 의장은 유니세프 금산군 후원장 등을 역임하며 금산군의회 제8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지냈다. 안의장은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군민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는 진정한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우리 대학 자랑스러운 동문의 지역사회 내 공헌과 활약으로 청운인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이어지고 있다.

/장선민 기자

Welcome to HiT 2탄

## 새롭게 바뀐 교내 유일 카페,



LINE 21  
COFFEE

전례에 없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대면 강의가 시작된 우리 대학교. 예년의 이맘때처럼 학교가 북적거리진 않지만, 교내 유일 카페인 LINE 21에는 꽤 많은 손님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게다가 올해, LINE 21엔 여러 변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다양한 이유로 방문한 손님들로 가득한 LINE 21, 새롭게 변모한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즐기기 위해 매니저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4면에 계속



Welcome to HIT 2탄

새롭게 바뀐

교내 유일 카페,

LINE 21

Q1. LINE 21, 어떤 점이 바뀌게 되었나요?

**A1.** 가장 가시적으로 키오스크와 그에 따른 호출시스템에 변화가 있었어요. 퇴식구를 바깥으로 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의자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준비 중인 부분이지만 디저트류, 음료류, 커피류에서 다양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류에선 아메리카노나 더치, 콜드브루 등 좀 더 다양한 커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B2 LINE 21(2호점)에 대해 모르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짧게 소개해주세요.

**A2.** B2 LINE 21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기존 2호점에서는 1호점의 일부 메뉴들만 주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건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1호점 메뉴를 모두 접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2호점을 만든 취지는 1호점에 손님들이 몰리는 피크 타임에 2호점 이용을 통해 대기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떨어질 수 있는 음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Q3. 손님들에게 바라는 점과 LINE 21이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하나요?

**A3.** 주변에 커피숍들이 많지만, 커피를 하는 사람으로서 LINE 21은 저렴하고, 그 가격대 이상의 퀄리티와 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직업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커피 쪽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덧붙여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공부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LINE 21을 방문해 주시는 손님에게 언제나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LINE 21, 과연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만의 LINE 21 원 픽 메뉴, 그리고 LINE 21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신입생은 모르고, 재학생만이 알고 있는 바뀐 LINE 21의 후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준비했다!

LINE 21을 많이 이용해 본 재학생과 처음 이용해본 신입생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가보자.

Q1. LINE 21, 많이 이용하시나요?

**A1.** (재학생)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더 많이 가게 되네요.

(신입생) 학교에 카페가 있다고 들어서 공부할 겸 가 봤습니다. 근데 가성비가 좋았고, 맛도 괜찮아서 자주 가고 있어요.

Q2.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A2.** (재학생)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를 자주 먹습니다. 아무래도 아메리카노는 대학생에게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뉴라 자주 먹습니다.

(신입생) 제가 쓴 걸 못 먹는 편이라 커피 종류는 못 마시고, 주로 아이스티를 마십니다. 그리고 민트초코도 좋아해서 민트초코 프라푸치노도 자주 먹어요.

Q3. LINE 21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3.** (재학생) 교내에 있는 것 중에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신입생) 앞서 말했듯이 맛도 괜찮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교내 카페라기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Q4. 이번에 바뀐 LINE 21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A4.**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느낄 수 없지만, 무인 키오스크가 생겨 손님이 몰릴 때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사람이 몰려서 줄도 오래 기다려야 하고,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인 키오스크가 생겨 음료 나오는 시간이 단축돼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과학과 송영훈, 과학수사과 김아영

푸른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험공부를 하다가 졸음을 참을 수 없다면 쉬는 시간을 가질 겸 새롭게 단장한 LINE 21에서 음료 한 잔을 마셔 보는 것은 어떨까?

2학기 때는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며 LINE 21에서 학우들의 끊임없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란다.

/ 오다영 기자 &amp; 정아빈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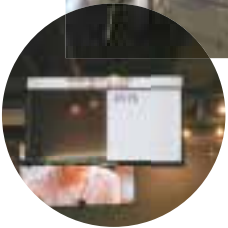


▲ 실내전경



▲ 키오스크

◀ 호출TV



## 대학가의 딜레마, 좁혀지지 않는 거리



각 대학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이버강의로 대체했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생 91명이 무리를 지어 한 장소에서 함께 문제를 풀거나, 전화 또는 SNS를 이용해 답을 공유하는 등 집단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또, 서강대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빈 강의실에 모여 함께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다른 학생에게 적발됐고, 한국외대에서 교양과목 온라인 시험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700명의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여러 대학에서 잇따른 온라인 시험에 대한 문제가 수면으로 떠 올랐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라인 시험 감독관’을 선발하거나 객관식 선택지 번호가 학생마다 무작위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심지어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 손이 카메라에 비치도록 하는 방법까지 검토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에선 어떤 방식으로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을까. 현재 우리 대학은 1학기 기말고사를 대면·비대면 방식의 선택적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양 교과목은 전면 비대면 방식을 결정했다.

비대면 시험 시, 대리시험 및 기타 부정 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전 과목 성적 무효화와 학칙 규정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대면시험 시에는 코로나19의 감염방지를 위해 학과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선행적 조치사항(마스크, 손 소독제 사용, 정기적인 환기, 책상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부정행위로 인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로 대면시험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전지역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면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과 걱정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대학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에서는 “대면 시험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누가 책임지는가”, “기숙사 취소했다가 시험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가” 등 다수의 대면시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대면시험을 찬성한다”와 같이 공정성을 위해 대면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정행위와 시험의 변별력 문제로 대면시험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학교 측의 입장과 대전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의 위험과 시험일정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학생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각 측의 입장을 고려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기중 기자

#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화살이 아닌 부메랑이다

## Black Lives matter

최근 많은 이들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이다. 이는 흑인을 향한 폭력과 제도적 차별을 반대하는 사회운동 슬로건으로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배경이 돼 만들어졌다. 이 흑인 남성은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9분가량 남성의 목을 짓눌렀다. 살려달라고 호소하던 이 남성은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음주상태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했으며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가 체포되던 영상에서 경찰의 입장과 달리 피해 남성은 경찰에게 저항하지 않았으며 경찰의 지시에 따랐던 것이 밝혀졌다. 흑인 남성 사망 사건 이외에도 흑인 아동과 히스패닉계 소년이 장난감 막대기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경찰차 8~10대가 이들을 에워싸고 경찰관들이 이들에게 총을 겨누는 등 미국의 경찰관들은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과잉진압을 해온 바 있다.

## 그렇다면 우리는 인종 차별로부터 안전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동양인이 흔하게 겪는 인종 차별로는 타 인종이 자신의 눈을 찢어 동양인의 생김새를 조롱하는 것과 모든 동양인에게 ‘니하오’, ‘칭챙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며 동양인을 향한 인종차별은 더 심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들끓는 가운데 한 흑인이 코로나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인을 폭행한 사건과 뉴욕 브루클린에서 동양인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미국인 남성에게 염산 테러를 당한 사건들은 우리 역시 인종차별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과연 피해자이지만 할까?

국내 프로농구 전주 KCC의 귀화 선수 라건아는 SNS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각종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들로 가득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우리나라의 한 웹툰 작가는 웹툰에 외국인 근로자가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허름한 속소를 보고 감탄하는 장면을 그렸다. 이는 단지 우리나라보다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들을 멸시한 것이다. 두 사례는 우리 역시 인종차별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몇몇 대한민국의 국민들 역시 코로나19를 ‘우한폐렴’이라고 칭하고 중국인들을 ‘짱깨’라는 말로 조롱하고 있으며, 이 행동이 비윤리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한 흑인 배우는 백인 배우와 동등한 지위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동양인 어린이 세 명을 미래의 회계사라고 소개한 후 “가장 헌신적이고 정확하고 근면하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아시아인들이 회사에 희생한다는 편견을 담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모순적인 그의 태도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니다. 인종차별을 달가워하는 이는 없다. 이는 중국인들을 이른바 ‘짱깨’라고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인을 조롱하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인종차별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동시에 출신지만으로 타인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혐오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 유경민 수습기자



# Hong Kong 香港, 그 시작의 앞에 서다

2019년 6월 9일, 홍콩의 거리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다. 그들은 하나 같이 “송환법 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홍콩 인구는 약 750만 명, 그중 2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즉, 3명 중 1명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은 무슨 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됐을까?

## 송환법 반대 홍콩시위

2018년 3월 19일, 대만에서 대만 국민이 홍콩인을 살인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홍콩으로 도주 후 체포됐으나 홍콩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가 2019년 송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송환법 개정안엔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중국본토 포함)라도 범죄자 인도 요청이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 혐의자를 해당 국가로 인도”한다고 명시됐다. 지도자가 범죄자 인도를 결정하면 의회의 견제와 감독 없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고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시위의 시발점이 되어 홍콩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나왔다.

## 홍콩의 뜨거운 노력

이번 시위에는 홍콩의 10~20대가 시위의 주체가 됐다. 홍콩의 7개 대학 학생회는 송환법 완전 철회 등 4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청사를 포위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홍콩 경찰은 중문대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 난입했고 중문대 한 곳에만 최루탄, 빈백탄 등이 2000발 발사되는 등 경찰의 탄압을 받았다. 홍콩 14개 전문대학 학생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경찰을 비난하고 중문대와 존망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본토에 있는 대학생들도 자신의 학생증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찍어 SNS에 게재하면서 뜻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각 홍콩 대학 학생회에서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장비들을 제공하고 있다. 물, 비상 의약품, 방독면, 헬멧 등을 배부했다. 아울러 그들은 포스터와 전단지 등을 나눠주는 등 시위를 보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한국의 뜨거웠던 외침

과거 한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서도 대학생의 외침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때 대학생들은 야당과 종교계, 시민단체와 함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세워 6월 민주항쟁을 주도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전지역 대학교에서는 각 학교 학생들이 교문 봉쇄선 돌파를 시도했고, 모든 학교의 방어선이 돌파당하자 대전 경찰은 대전역까지 가두시위를 보장하고 진압하지 않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홍콩의 대학생도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우리처럼 같은 역사를 겪고 있는 홍콩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또, 과거 대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임을 후배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현선 기자





청  
년  
정  
책

국민취업지원제도



##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난 호의 구직활동지원금 2탄은 7월부터 새로 개편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사로 대체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보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됐다.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가운데 20% 정도만 실업급여를 받았었다. 특히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2019년 6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의 지원 대상자는 크게 1, 2유형으로 분류된다. 1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요건 심사형’과 중위소득 50~120%인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해 지급하는 ‘선발형’으로 나뉜다. 이들에게는 구직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유형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취업 프로그램 등은 물론 구직활동비용(금액 미정)도 지원받게 된다.

유형	지원대상	소득지원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 검토 예정
II 유형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예정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단되고, 부정수급 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가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익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잘 찾아보고 똑똑하게 챙겨가도록 하자!

/ 이현선 기자

## Culture

기자문화수첩

미약한 불씨가 일으킨 창대한 그 날

## 1987, 뜨거웠던 6월의 광장

이번 호 기자문화 수첩은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담은 <1987>을 다루고자 한다. 불의에 맞서 민주화를 뜨겁게 열망했던 1987년도의 이야기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지극히 평범하고 평안한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고, 그들로 인해 소중하게 얻은 결실임을 기억하며 이 영화를 보기 바란다.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응급차 한 대가 들어선다. 영화 초반부터 나오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는 그 시대 독재정권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응급차에서 내린 의사를 맞이한 것은 폭행과 물고문으로 사망한 故 박종철 열사의 시신이었다. 정부는 故 박종철 열사가 대공분실이 아닌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경찰과 언론을 조작하여 은폐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에 의문점을 가진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치안본부장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내놓았다. 그 당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고, 진실을 묻고자 했던 정부의 부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대사였다.

<1987>에서는 어느 한 명을 주인공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1987>은 그들 모두를 주인공으로 그려낸다.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끝까지 부검을 신청했던 최 검사, 진실을 밝히고자 몸 사리지 않고 부딪혔던 윤 기자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불의에 맞서기 시작한 의사와 교도관까지. 각자가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그리며 민주주의를 바라본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용기가 한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었다. 바통을 이어나간 미약한 불씨들이 큰 횃불로 확장되어 광장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공권력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1987>이 등장인물 모두를 주인공으로 그려낸 이유이다. 누구 하나 주인공이랄 것 없이 1987년 그해는, 모두가 영웅이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기에 더욱 참혹하고 먹먹함으로 찾아왔던 <1987>.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문장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온 이들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영화가 어둠을 나타내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시작됐다면, 영화의 마지막은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광장에서 막이 내린다. 미약한 몸짓, 미약한 불씨가 일으킨 창대한 그 날의 시간, 1987년이다.

/ 장선민 기자

## Column

기자칼럼

유통기한 지난 정보는 버리세요

## COVID-19 코로나 인포메이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 동선 정보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안전과 방역, 감염 예방을 위해 SNS나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완치 후, 혹은 자가격리 기간인 14일이 지난 후의 정보는 과연 어떻게? 정보는 그대로 인터넷상에 남아있으며, 무분별하게 퍼져나가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동선으로 알려진 식당이나 업소 등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

### 타인이 하면 어려운 일, 내가 하면 쉬운 일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최초로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인터넷 방역단’이 등장했다. 인터넷 방역단은 삭제 요청 접수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방역에 쓸모없는 정보들을 찾아 삭제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청의 인터넷 방역단은 송파구 내 확진자 정보만 삭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6월 11일, 인터넷 방역단은 정부와 지자체들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정식사업으로 채택됐다. 이를 통해 인터넷 방역단의 활동 영역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보는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이 구청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상에서 찾아 정리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보내면 포털 사이트를 거쳐 정보를 올린 작성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의 정보를 올리기는 쉽고 단순하지만, 온라인 세상에 존재하게 된 정보를 삭제하는 작업엔 복잡하고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내리면 아주 간단한 일이 된다.

### 지워야 할 정보

동선 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리고, 퍼뜨리는 것은 분명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조심하자는 뜻에서 한 선한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존재 가치가 없고, 방역엔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보를 올린 우리 모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스스로 정보를 삭제하며 개개인의 인터넷방역 단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동선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유효성이 사라져 자칫 확진자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낙인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올바르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모두가 좋은 기억은 간직하고, 나쁜 기억은 어서 잊을 수 있길 바란다.

/ 오다영 기자

# The Wisdom of Solomon 24

COVID-19로 우리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말고사를 대면 또는 비대면 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다.

스물네 번째 여행을 떠나 보자. 솔로몬은 의로운 말과 악한 말(The Righteous Words and Evil Words)에 대해 얘기한다.

With his mouth the godless destroys his neighbor, but through knowledge the righteous escape.

사악한 사람은 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멸망시키지만 / 그러나 / 올바른 사람은 지식을 통해/ 빠져나온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함부로 혀를 놀려 이웃을 해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식을 발휘해 자신을 보 호한다. (잠언 11:1-9)

[어휘]	with one's mouth: 입으로	godless: 사악한
	righteous: 올바른, 옳은	escape: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다, 빠져 나오다

수많은 단어를 구사하며 대화할 수 있는 입과 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다. 그러나 이 은총은 다루기 쉽지 않은 은총(uneasy grace of God)이다. 입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며 전하는데 중요한 도구이다. 그런데 이 입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며 친척들과 친구들, 더 나아가 타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악한 사람들이 말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때에는 사회가 경제적, 도덕적 파멸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험담하고 욕설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를 꽂는다. 정도가 심한 사람은 자신이 그런 공격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자, 즉 지혜롭고 상식이 있는 자는 말로 남을 위로함으로써 사람을 살린다.

학교 홈페이지의 Q&A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예비 대학생들이 우리대학을 방문하여 학교와 학과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곳인데 비대면 시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대해서 아무리 익명이라 할지라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보기가 좋지 않았다.

히톡(HiT-talk)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지 않은가! 쌍방향의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할 노릇이다. 2학기에도 우리는 Post-COVID-19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에 교정에서 밝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를 희망한다. 철저한 자기 위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교양교육원 안남용 교수

## 도서관소식

| 신간안내 ※ 이외의 다양한 신착도서들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나는 된다 잘된다  
박시현



행복은 이어달리기  
마스다 미리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김유은



어느 날 갑자기 무지력이 찾아왔다  
클라우스 베르하르트



이기는 몸  
이동한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나를 숨치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초예측 부의 미래  
마루야마 순이치 외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이슨 셉커



지리의 힘  
팀 마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희망도서 신청안내 - 읽고 싶은 책 신청하기

도서관 홈페이지 [lib.hit.ac.kr](http://lib.hit.ac.kr) 접속 ▶ 로그인 ▶ ‘도서구입신청’ 클릭 ▶ 아래 팝업페이지에서 도서신청



## 독자참여퀴즈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에서 개최한 ‘2020 전국 전문대학생 학습 방법 경진대회’의 주제는?
- ‘대전보건대학교 AR캠퍼스 길찾기 서비스’에 사용된 기술은?
-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선택적 조치사항 중 하나인 ‘책상 간 거리두기’에서 유지해야 할 거리 간격은?
- 대전보건대학교 교내 유일 카페의 상호명은?
- 흑인을 향한 폭력과 제도적 차별을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슬로건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그럼 1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자 조건은?
- 영화<1987>에서 정부가 故박종철 열사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기자의 질문에 한 답변은?
- 이예림 수습기자의 8면 에세이에서 필자의 분노심을 코로나19와 연관 지어 표현한 말장난은?
-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시위의 원인이 되는 법안은?
- 이번호 신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 순우리말퀴즈

‘맨드리’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겉으로 드러나는 자태나 맵시
- ② 꾸미지 않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맵시
- ③ 웃을 입고 매만진 맵시
- ④ 서 있을 때의 몸맵시

/ 이현선 기자 & 이예림 수습기자

<지난호 퀴즈 정답>

1. 장례지도와 양무석 교수, 치기공과 현종구 교수, 간호학과 송례현 교수
2. 화장실 비누봉 추가설치 및 세면대 옆 화장지케이스 설치
3. 샤넬라
4. 언택트(untact)문화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6.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of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
7. 멜로가 체질
8. 법의 문제점
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순우리말 퀴즈 정답> 3번 웃을 입은 채 아무 데나 쓰러져 자는 잠

<지난호 정답자>

| 치위생과 2학년 임누리

| 치위생과 2학년 조영인

■ 과 학년 이름

■ 연락처

**'대전보건대학교 HiT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니 정답과 함께 학과,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LINE21상품권을 지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신문은  
원고를 기다립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신문에서는 243호에 실릴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진, 시, 수필,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말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0년 8월 28일 오후 6시까지
- 보내주실 곳. [olivekyung@hit.ac.kr](mailto:olivekyung@hit.ac.kr) 또는 신문사(8416호) 우편함



코로나 19와 2020년, 그리고 21학번

# 얼어붙은 2020, 우리는 스물이다

코로나19, 스물이라는 우리의 초고를 송두리째 잠식한 단어. 최초이자 최종으로 남아야 할 일대기의 첫 장은 난수표로 채워져 간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시대를 향유하는 교집합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퍼낼 힘을 가졌다.

‘시작은 희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다’라는 구절을 땀감 삼아 말이다. 수습기자라는 이름으로 신문사에 모인 우리의 교집합은 연료림(燃料林)이다. 이번 호에서는 스물이라는 새 도화선에서 우연하게도 이례적인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수습기자들의 이야기를 녹여내 보았다. 무의미한 난수표를 찢더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기고는 점화기가 된다. 우리는 펜 대신 햇불을 키쳐들었다.

## 온라인 21학번

### | 수습기자. 김규리

2020년, 성년이 되고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코로나가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했다. 10대의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나는, 모든 학교의 졸업과 입학이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들었을 때, 아쉽고 허탈했다.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교 입학은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 것이다.

처음, 2주간 강의가 미뤄졌을 때엔 그래도 3월 중순까지만 기다리면 학교를 가고 OT(오리엔테이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니 그 날만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코로나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 제때 개강을 못하게 되었고, 결국 OT마저 취소되고 말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된 나와 친구들은 장난스레 “우리는 내년 후배들이 들어오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 해를 아예 없었던 해로 하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들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개강이 늦춰지고, 점점 농담처럼 나누던 그 말은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는 대면 강의 대신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수강신청도 오리엔테이션 시간 없이 조교 선생님의 카톡을 통한 간단한 설명만 들은 후 바로 시작하였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대학생이 맞는 것인가, 이 상태로 대면을 할 바엔 차라리 휴학을 하고 21학번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2학기부터 대면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처음으로 같은 과, 같은 반 친구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도 큰 아쉬움이 들지만 더욱 무서운 사실은 만약 코로나의 확진자수가 줄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1년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20살, 새내기로서의 추억은 쌓지도 못한 채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 분명히 허탈하고, 슬플 것이다.

## 스무살 경민이의 일기

### | 수습기자. 유경민

2월 중순, 대학 합격 전화를 받은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수시 6광탈을 한 나에게 합격 전화는 더 짜릿했다. 그렇게 나는 고3 신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해방감과 자유를 느꼈다. 마시는 공기조차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그 날부터 나는 새내기가 될 준비를 시작했다. 마침 유튜브 알고리즘은 웃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학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관련된, 새내기를 위한 영상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았지만, 마음만은 벌써 파릇파릇한 새내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개강이 자꾸자꾸 미뤄졌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6월이 되었다. 내가 스무 살이 되고 가장 하고 싶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직접 보러 가기, 두 번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연애했기,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어서 국내 여행을 떠나기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세 가지 중 그 무엇도 이를 수 없었다.

첫 번째로,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경기는 모두 무관중으로 진행되어 경기를 직접 보러 갈 수 없었다. 두 번째로, 집에만 있어 사람을 만날 일이 없던 나는 연애와 썸과는 멀어져갔다. 세 번째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친구와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 않아 여행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종강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매일 집에서 강의를 듣고 게임 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집에만 있어 많이 답답하고 친구들이 그리지만 스무 살, 어른이기에 외로움과 답답함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었다.

## 다행이다

### | 수습기자. 정아빈

어느새 무더운 여름. 우리의 20살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까? 친구들과 대학교 캠퍼스를 누비며 다니는 상상을 하며 새내기를 꿈꿨다. 하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방안에 갇혀 살며 상상이 현실에서 멀어져 가는 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을 때 나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학교는 안전한가?’였고, 다음은 ‘친구는 사귄 수 있을까?’, 내가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였다. 그렇게 걱정으로 며칠 밤을 지새웠다.

시간이 흘러 대면 수업으로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강의실 안에 나는 첫발을 내디뎠다. 기숙사에서 강의실로 가는 길에는 소독제를 들고 소독하시는 분들로 가득했다. 그래서 내 걱정 중 하나가 사라졌다. 그리고 아직 어색한 우리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참 다행이었다. 그렇게 걱정 2개가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니며, 원하던 교내 신문사에 들어와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에서야 느낀다. 나는 학교생활을 누구보다도 알차게 보내고 있다.

나와 같이 학교생활에 대해 걱정을 한 학우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막상 부딪혀보니 학교에서 소독은 매일 해주셨고,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생활은 적응할 만했다. 이 글을 읽는 학우들에게 말하고 싶다. 걱정 때문에 두려워도, 무엇이든 해 보자. 다행스럽게도 마주해야 했던 많은 걱정들은 생각보다 더욱 다정했다.

## 감정의 사이렌, 코로나 레드

### | 수습기자. 이예림

부푼 가슴으로 맞이한 대학생활의 시발점은 혼란 그 자체였다. 전염병 확산으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강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불안감을 품게 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에 여론은 물론 언론까지 휘청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적잖은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듯 생활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이내 분노로 변질하였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블루를 겪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코로나 레드’(필자의 분노심을 코로나19와 연관 지어 표현한 말장난)가 찾아온 듯했다. 사소한 일에도 크게 분노했고, 순간 치밀어 오른 분노는 나의 정신을 오랫동안 지배했다.

이 때문이었을까. 나의 분노를 참으로 과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했고, 그 대상 중 하나가 ‘대학’이었다.

강의노트 속 빼곡한 활자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수님의 음성. 이 모든 것이 지식 대신 불쾌감만을 준다고 믿었다. 나의 지식을 평가하는 위치에 선 이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지칭해도 좋았다. 매일 주어지는 강의와 과제들을 멀리하고, 부족하지도 않은 잠을 청하거나 SNS에 갈잡은 분노를 표출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감정은 꾸준히 적신호를 울려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의 카페를 찾았다. 많은 테이블에서 사이버 강의를 시청 중인 학생들을 목격했고, 회의를 느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학업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노력하는 데에 반해 타인과 사회를 탓하고 있는 내가 미워졌다. 그래서 생각했다.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는 지체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비워진 커피잔을 등지고 집으로 향했다.

언제까지도 적신호만을 울려댈 수는 없었다. 신호등의 적색등도 때가 되면 녹색등을 밝히듯, 나의 감정도 안정을 되찾아야 했다. 방문을 굳게 닫고 노트 북과 책을 펼친 채로 날이 밝도록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다. 졸음이 밀려오게 되어서야 창을 넘어 내리쬐는 햇볕을 취침 등(就寢燈)으로 삼고, 지저귀는 새 울음소리를 요람가 삼아 잠을 청했다.

나의 ‘코로나 레드’는 이리도 허무하게 종지부를 내렸다.